

## 현대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방향: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류 승 아<sup>†</sup>

미국에서 시작된 공동체심리학은 지난 50여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낮은 학문 분야이다. 본 논문은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공동체심리학의 중요성과 실용성을 피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 중 관점의 전환, 1차변화와 2차변화, 생태학적 관점과 분석 수준, 그리고 실천행동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기본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심리학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며, 현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분야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공동체심리학, 관점의 전환, 1차변화 및 2차변화, 생태학적 분석 수준, 실천행동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E-mail: seungahryu@kyungnam.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공동체심리학은 “연구와 실천행동을 함께 실시하여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Kloos et al., 2021, p.3) 공동체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이 심리학의 영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65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의 한 도시인 스왈스컷에서 개최된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 모인 심리학자들은 그 당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심리학자의 역할 및 훈련을 논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학자가 실행하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며 공동체심리학을 설립하였다. 이들이 초점을 두고자 한 새로운 시각은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와 개인의 행동을 연결하는 심리적 과정”이었다(Bennett et al., 1966, p.7). 이후 미국의 공동체심리학은 다학제적 기본 가치를 주지하면서 많은 학문과의 협업을 통해 발전하였다.

공동체심리학이 기존 심리학과 다른 부분은 연구의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구의 분석단위를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맥락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심리학은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에 주된 관심을 두게 되고,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심리학이 미국에서 설립된 초창기에는 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 구조에 관심을 두었다면(Lorion, 2022), 이러한 관심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LGBT,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의 소외집단으로 확장되었다(Perkins & Schensul, 2016). 소외집단과 관련된 문제는 권력, 식민지배, 형평 등의 개념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연구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예, Davidson et al., 2006; Hagan & Smail, 1997; Prilleltensky, 2003; Serrano-Garcia, 1994; Sonn, 2004).

공동체심리학은 현재도 끊임없이 내부적 성찰과 공동체심리학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Sonn과 동료들(2022)은 공동체심리학이 반자본주의 연대를 육성하기 위한 비판적 접근법, 포용에서 탈식민 연대로의 이념 전환, 기후 위기, 그리고 특권과 권력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데 있어 학계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최근 공동체심리학회지(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의 5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특별호에서도 공동체심리학의 이론, 방식, 개념들을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이익 집단들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Lorion, 2022).

공동체심리학이 다른 나라에서 활발한 활동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낮은 학문 분야이다. 학술지를 통해 공동체심리학을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했던 정안숙(2015)은 “공동체가 현대인의 복지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적 맥락에서, 본 논문은 심리학의 한 분과로서의 공동체심리학을 소개(p. 667)”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문을 출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공동체심리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아직도 미미하다.

정안숙(2015)의 논문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을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본 논문은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심리학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고에서 소개할 공동체심리학의 기본 개념은 관점의 전환, 1차변화와 2차변화, 생태학적 관점과 분

석 수준, 그리고 실천행동이다. 물론 이 외에도 중요한 개념들이 더 많이 있으나 본 논문은 공동체심리학의 대중적 인식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공동체심리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 관점의 전환

공동체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은 관점의 전환이다. 심리학은 지금까지 사람 및 세상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individualistic perspective)을 견지해왔다. 이 관점을 고수할 경우, 드러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회심리학자 Ross(1977)는 우리가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불합리한 행동을 판단할 때, 상황보다는 개인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성을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누군가 시험을 망쳤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라고 결론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귀인 이론을 연구한 사회심리학자들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개인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상황으로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행동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귀인 이론이 개인의 내부에만 중점을 두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공동체심리학의 관점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과 방향성은 사뭇 다르다. 사회심리학자가 '상황'이라고 규정되었던 요인을

공동체심리학자는 '맥락(contex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맥락은 상황을 넘어서는 더 크고 넓은 외부의 힘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동체의 성격, 문화적 분위기, 사회적 규율 및 법규 등이 포함된다(Kloos et al., 2021).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건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맥락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심리학은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한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안과 쟁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이란 무엇인가?

McChesney(1990)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의 필요성을 '의자 빼기(musical chairs)' 게임에 비유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자 빼기 게임은 의자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보다 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상황에서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자에 앉지 못한 이유가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인가?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문제는 의자 빼기 게임처럼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는 노숙자의 원인을 약물남용, 정신장애, 가정폭력 등의 개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지만, Shinn(2016)은 미국 노숙자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숙자들이 이용 가능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의자 뺏기 게임처럼 이용 가능한 적절한 가격의 주택보다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변인 역시 의자를 차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Kloos 등(2021)은 “개인 변인으로 인해 의자를 차지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개인 변인이 앓을 수 있는 의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게임은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것이다.(p.6)”라고 역설하며 사회문제를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을 역설하였다.

현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 역시 개인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2021년 1.1%보다 0.6%가 증가한 1.7%에 달하였다(교육부, 2022). 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사회적 여파의 심각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심리학 영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격 및 배경 등을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들 중 ‘학교폭력’, ‘따돌림’, ‘왕따’ 등을 제목 또는 주제로 하는 논문들은 검색한 결과, 총 27편 중 구조의 문제를 다룬 논문은 이미영과 장은진(2015) 그리고 이은희 등(2004)의 단 2편에 그쳤다. 이를 제외한 다른 논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또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다룬 내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학 영역에서

학교폭력을 구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군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소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낙인 역시 공동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을 상정할 수 있다. Link와 Phelan(2001)은 “모든 종류의 불리한 상황이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p.375)”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조적 낙인(structural stigma)’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실제로 정신장애인이 주거, 교육, 직업, 경제적 권리 등에서 겪는 불이익은 개인 수준의 낙인 영역에서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Hatzenbuehler와 Link(2014)는 정신장애와 관련한 구조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점점 더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Hatzenbuehler와 동료들(2014)은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낙인이 높은 주(state)에 사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구조적 낙인이 낮은 주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조적 낙인의 중요성을 꾸준히 지적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예, Ahmed et al., 2011; Armstead et al., 2019; Hatzenbuehler, 2017; Mitchell et al., 2021).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구조적 낙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언급되고는 있지만(예, 강성혁 등, 2015; 김경준, 2010; 김문근, 2015), 심리학 영역에서의 관심은 전무한 실정이다.

#### 1차변화와 2차변화

1차변화 및 2차변화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관점의 전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1차

변화(first-order change)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재배치하거나, 또는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Watzlawick et al., 1974). 사회학자 Shaw와 McKay(1969)는 1900년부터 1933년까지 시카고의 인구 이동이 극심했던 세 시기(1900-1906년, 1917-1923년, 1927-1933년)와 청소년 범죄율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세 시기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지역의 많은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주민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청소년 범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범죄율 상승의 원인이 지역 주민의 특성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 문제(빈곤, 인구과밀, 사회적 해체)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구성원이 그 지역을 떠나고 새로운 구성원으로 다시 채워진다고 해도 동일한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을 이주시키는 것,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소외집단의 낙인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등은 1차변화에 해당한다. 물론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에 기인했다면 1차변화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노숙자 문제, 학교폭력, 소외 집단 차별 등은 구성원의 교체 또는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1차변화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1차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과 그 맥을 함께 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1차변화를 모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미국의 노숙자 문제가 적절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숙자들이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고 직업 기술을 익힌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가용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체심리학자는 집단을 개인의 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여러 복합적인 관계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 한다면 이러한 관계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개인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그들이 공유한 목표, 역할, 규율, 규칙, 권력 등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의 변화를 2차변화(second-order change)라고 한다(Linney, 1990; Seidman, 1988). 그러므로 2차변화는 구조나 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차변화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조적인 체제를 지탱하는 개인 간 관계, 권력, 그리고 맥락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구조적 낙인 역시 차별이나 낙인 문제를 각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어 사회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하는 2차변화에 해당된다. 공동체심리학자 Sarason(1972)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였다.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사의 능력 부족, 학생의 동기 부족, 그리고 학부모 및 행정 관리자의 무신경 등을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학교에 문제를 일으킨 관련 구성원 모두를 교체하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까? 대신 구성원은 새로운 인물로 바꾸지만, 학교의 규율, 규칙, 정책 등의 체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Sarason(1972)은 체제는

바꾸지 않고 구성원만 교체하는 1차변화만으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 영역에서 대표적인 2차변화의 예시로 일컬어지는 것이 옥스포드 하우스(Oxford House)이다(Jason et al., 2015). 옥스포드 하우스는 물질 남용 회복을 위해 '자치 및 자립의 회복 거주지(self-run, self-supported recovery house)'를 표방하는 사회복귀 시설이다(Oxford House, n.d.). 물질 남용,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는 이곳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옥스포드 하우스가 어떻게 2차변화를 실현하였는지 살펴보면, 기존의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로 규정되는 여러 규범과 규칙이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규범과 규칙은 입주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따른다. 즉, 모든 의무와 책임은 입주민들에게 있고, 대표를 뽑거나 새로운 입주민을 선정하는 등의 의사 결정권 역시 외부인의 간섭없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치료의 형태, 예를 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지 자조 집단 치료를 받을지의 선택도 그들에게 주어진다. 옥스포드 하우스가 표방하는 '자치 및 자립의 회복 거주지' 슬로건과 일관되게 시설의 운영은 입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스스로 노동을 통해 충당한다. 입주민과 의료진과의 관계도 기존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옥스포드 하우스 거주자들과 일반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24개월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약물 사용이 낮았고, 월수입이 높았으며, 약물사용으로 인한 수감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son et al., 2006). 1975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시작된 옥스포드 하우스는 현재

이 모델을 활용한 3,200채 이상의 자급자족 형태의 거주지가 있으며, 1년 동안 이 거주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46,000명 이상이 될 만큼 성장하였다(Oxford House, n.d.). 이러한 성공은 기존의 역할 관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규범과 규칙의 도입, 그리고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포함한 2차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은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의 시행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은 전국에 182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서울이 55개소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한국의 경우, 2차변화를 표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확보된 정신장애인 주거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전문가의 감독과 통제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배은미, 박희정, 2017). 한국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독립 주거 유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주택 마련을 위한 비용 및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다(김희정 등, 2022; 최희철, 배은미, 2021).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변화를 아직 용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동체심리학의 2차변화 개념은 독립 주거 형태의 시설을 지지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된다면 한국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2차변화를 기반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주거 형태에 대한 담론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생태학적 관점과 분석 수준

생태학적 관점은 앞서 소개했던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과 그 결을 같이 한다. 즉, 구조에 초점을 맞춘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발달심리학자인 Bronfenbrenner(1979)가 인간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생태학의 시각으로 제안한 것이 그 시초이다.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 가족 및 친구 등의 미시체계(microsystem),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직장 등의 외체계(exosystem), 그리고 이 두 체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의미하는 중간체계(mesosystem)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이 모두를 둘러싼 가장 큰 생태학적 수준을 거시체계(macrosystem)라고 지칭하였다. 거시체계에는 문화, 관습, 법, 사회적 정책 등이 포함된다. Bronfenbrenner는 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역사적 환경을 일컫는 시간체계(chronosystem)를 추가하였다(Schunk,

2016).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은 발달심리학뿐만 아니라 공동체심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Kloos et al., 2021). 하지만 생태학적 수준이 발달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발달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공동체심리학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공동체심리학에서 다루는 생태학적 분석 수준은 그림 1과 같다.

생태학적 분석 수준의 가장 중심에는 개인(individuals)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에게 가깝게 위치한 수준일수록 직접적이고 더 친밀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개인에게서 멀리 위치한 수준은 간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를 뜻한다. 모든 수준의 중심에 위치한 개인은 모든 수준의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분석 수준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수준에 걸쳐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다. 공동체심리학이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관점보다 구조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 집중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에게 발생하는 사건을 개인을 둘러싼 여러 다른 분석 수준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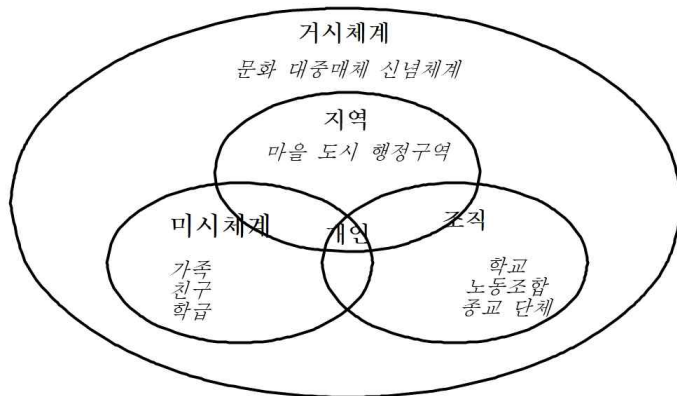


그림 1. 공동체 심리학에서의 생태학적 분석 수준 (Kloss et al., 2021, p.16 그림 1.1에서 인용)

것이다.

공동체심리학의 생태학적 수준에서 개인에게 가장 가까운 분석 수준은 미시체계(microsystems)이다. 미시체계는 친밀한 대인관계 대상이나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는 공간에 해당하며, 개인이 실제로 접하는 가족, 학급, 친구, 동아리, 이웃 등의 공동체가 포함된다(Maton & Salem, 1995). 미시체계에 속하는 집단은 단순히 구성원들의 합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역동이 발생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학급은 교사와 학생의 합이 아니라 이들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과 기능들이 응집된 맥락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미시체계는 개인에게 중요한 지지체계이자 갈등의 원천을 제공하는 분석 수준이다. 미시체계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체계인 조직(organizations)은 미시체계의 합으로 구성된다. 조직은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공동체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집단의 명칭, 임무, 규칙, 정책, 감독 관계 등의 체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학교, 직장, 조합, 종교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체계는 지역(localities)으로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인식할 때 가장 잘 알려진 수준일 것이다. 공동체심리학에서는 생태학의 모든 수준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만(예를 들면, 가족 공동체, 학교 공동체, 종교 공동체 등), 공동체라는 용어는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역은 지리적으로 묶인 군, 마을, 지방 정부 등의 행정 도시를 일컫으며, 많은 미시체계와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은 미시체계와 조직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이 미시체계의 합 이상인 것과 같이 지역

공동체 역시 단순히 미시체계와 조직의 합이 아닌 지역 공동체만의 역사, 전통, 문화, 가치관 등을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분석 수준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거시체계(macrosystems)는 앞서 언급한 개인, 미시체계, 조직,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분석 수준이다. 거시체계는 세계적 기업 및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문화, 대중매체, 신념체계 등이 포함된다.

각 수준에 해당하는 공동체들은 상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심리학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제를 살피는 것이 사회 현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생태학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동체심리학의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범죄 발생의 원인을 도시환경 특성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김성재 등(2022)의 연구는 환경 특성 중 상업 시설, 가로망 구조, 생활불편 민원신고, 녹지 비율 등이 범죄율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특히 민원신고와 녹지비율은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는 범죄자 또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범죄의 원인을 밝히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onzales 등(1996)의 연구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사한 결과, 이웃 환경의 변인이 가족 특성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웃 환경은 저조한 학업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은 상위 공동체의 성향에 따라 개인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 성적의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가 관용적일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지만, 범죄율이 높거나 지역 관련 위험요인이 높은 곳에서 모집한 표본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양육방식이 엄격할수록 자녀의 성적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Gonzales et al., 1996).

생태학적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1차변화 및 2차변화와 관련된다. 그리고 개입 전략 역시 변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생태학적 관점은 문제 해결의 시작점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여러 사회문제, 예를 들면 학교폭력, 소외집단 차별, 실업, 출산율, 세대/성별/지역 간 분열 등을 개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게 된다면 다른 분석 수준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심지어 개인의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안, 예를 들면 개인의 성격, 학생의 성적, 또는 학교 및 직장 부적응 등이 상위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없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개인의 결함, 약점, 부족으로 바라본다면 더 상위의 분석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심

리학의 생태학적 관점은 다양한 분석 수준에서 적합한 개입 전략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Kloos 등(2021)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을 계획하였는데, 이 모델은 여러 연구들(예, Dohrenwend, 1978; Moos, 2002; Wandersman et al., 2002)을 바탕으로 스트레스원을 맥락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동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거리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인 원거리 요인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생태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2). 물론, 개인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각 요인의 영향력 세기는 달라지겠지만, 상황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생태학적 관점의 또 다른 장점은 그림 2의 패널 E '대처를 위한 자원 활성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 역시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태학적 관점은 위험 요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보유한 강점 및 자원 등의 보호 요인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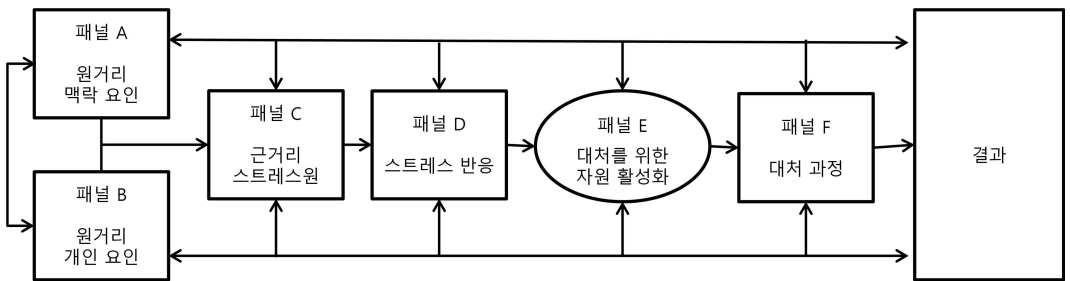


그림 2. 생태학적 수준, 스트레스원 및 대처 과정 간의 잠재적 관계 (Kloos et al., 2021, p.297 그림 9.1에서 인용)

## 실천행동

본 논고를 시작하면서 공동체심리학의 정의를 “연구와 실천행동을 함께 실시하여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Kloos et al., 2021, p.3). 이 문장에서 실천행동은 영어의 ‘action’을 번역한 것으로, 공동체심리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심리학에서 ‘실천행동’의 개념은 단순히 활동이나 행동의 의미만으로 해석하기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천행동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Bennett 등(1966)이 공동체심리학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규정한 ‘참여자-개념화자(participant-conceptualizer)’의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nnett 등(1966)이 공동체심리학자를 ‘참여자-개념화자’라고 정의한 이유는 공동체심리학자가 공동체와 관련한 여러 이론을 정립하고, 개념을 수립하며,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연구자의 역할인 ‘개념화자’인 동시에 공동체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식을 개념화한 Sarason(1974)의 다음의 언급은 공동체심리학자를 왜 ‘참여자-개념화자’라고 지칭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관찰자로서 떨어져서 그것에 관여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에 대한 생각만 전달할 뿐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Sarason, 1974, p.266).

공동체심리학에서 실천행동을 강조한다고 하여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덜 중요시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공동체심리학의 실천행동은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실천행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시 연구를 통해 다듬어진다.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 중 경험적/실증적 근거(empirical grounding)는 공동체 실천행동이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고, 실천행동에 얻은 결과는 다시 공동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개념적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Rappaport, 1977; Tebes, 2017). 공동체심리학에서 실천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동안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영역에 관심을 둔다는 뜻이지 심리학적 연구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동체심리학의 실천행동은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민협력의 과정이 요구된다. 협력(collaboration)은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공동체 구성원과 맺게 되는 동등한 관계를 뜻한다(Case, 2017). 공동체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보다 우위에 있거나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지식을 제공하지만,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 강점, 그들의 지식을 발현시켜 프로그램에 녹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Perkins et al., 2004). 그러므로 연구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은 단순히 연구 참여자 또는 피험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

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Javdani et al., 2017). 실천행동 연구는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장기간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이 없다면 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없다.

실천행동은 공동체 맥락에서 실행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해당 공동체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살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는 것과도 연관된다. 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고, 실천행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문화를 깊게 살펴야 한다. 심지어 특정 맥락에서 성공한 개입 프로그램이라도 다른 맥락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맥락의 환경과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들면, Derzon 등(2005)은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청(U.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이 약물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시범 프로그램을 46개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지역들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효과 크기는 겨우 0.02에 불과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절반 가까이의 지역에서는 효과 크기가 음수를 보이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이 통제 집단 학생보다 프로그램 이후 약물 사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실시 방식, 통제 집단 선정의 실패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후에 분석되었지만, 시범 프로그램을 해당 맥락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시하였다는 공통점이 내포되어 있었다(Derzon et al., 2005). 그러므로 실천행동은

해당 공동체의 문화, 역사, 강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행동은 직접적인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연구자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심리학 연구는 가설 검증, 명확한 인과 관계, 그리고 일반화 등을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의 영향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동체심리학 연구는 연구자의 편향을 포함한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는 구성주의(예, Tebes, 2017; Tebes et al., 2014), 지식이 권력 구조에서 정립되었다고 보는 비평이론(예, Campbell & Wasco, 2000; Dutta, 2016; Eagly & Riger, 2014; Nelson & Prilleltensky, 2005) 등의 방법론에 관심이 있다. 공동체심리학은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절대선으로 지향하지 않는다. 모든 연구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연구자의 가치관이 투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중립적인 연구는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Kloos et al., 2021).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의 생각 또는 맥락의 영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성찰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Tebes, 2017). 그렇다고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증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심리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실천행동으로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연구와 업무가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성찰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방향

공동체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 처음

설립될 당시의 상황은, 심리학자, 구체적으로 임상심리학자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Fairweather와 동료들은 정신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였고, 이는 그 당시 심리학의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이 고민하고 원했던 것은 “심리학을 이행하는(do psychology)”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Kloos et al., 2021, pp. 33-34). 다시 말하면, 기존 심리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확장하여 업무의 경계를 넓혀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임상심리학자가 임상 장면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 치료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환자와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것 등은 당시의 임상심리학자에게 파격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Fairweather와 동료들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를 지역사회로 옮겨 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Fairweather Lodge’라는 이름의 대안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이 모델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의 공동체심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Fergus, 1990).

공동체심리학의 영역이 성장함에 따라 각국의 공동체심리학자는 공동체심리학의 이론과 실천을 자신의 국가와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예, Perkins, 2009; Reich et al., 2007).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공동체심리학은 억압받는 그 당시의 상황과 불평등 및 불공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Montero & Varas-Díaz, 2007).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19세기 전반에 유럽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이후에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있었고 군대에 의한 쿠데타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Powell & Thyne, 2011). 이 지역에서는 공동체심리학의 개념이 억압의 상황에 대한 탈이데올로기와 의식화를 촉진하여 개인의 행동을 촉구하는 지식과 실천행동을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Reich et al., 2017). 남아프리카에서의 공동체심리학은 1980년대의 유럽 및 미국 심리학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아프리카의 심리학자들은 유럽 및 미국 심리학에서 강조되는 개인주의, 탈맥락화, 비정치화가 자신의 문화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공동체심리학에서 찾았다(Dawes, 1986; Nicholas & Cooper, 1990). 또한, 악화되는 정치적 상황과 아파테이트(Apartheid) 제도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한 국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기반의 심리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을 거치면서 공동체심리학은 발전하였다(Reich et al., 2017).

이렇듯 각 지역에서 공동체심리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와 중점을 두는 영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어 이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맞물렸기 때문이었다(Levine et al., 2005). 현재 한국사회도 유례없는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노동자 비율의 증가, 청년 취업자 수 감소, 소득 계층 간 격차, 행복지수 하락 등이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통계청, 2022). 이 외에도 높은 자살율, 학교폭력,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문지마법죄 등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심리학의 개념 및 가치들이 현재 한국사회 맥락에 적절한지 검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치와 개념은 절대적으로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해결 방법이 2020년대 한국사회에 통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Reich 등(2017)은 공동체심리학의 추세가 사회정의와 불평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지역과 문화에 따라 공동체심리학의 이론과 개념이 강조된 영역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심리학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 및 한국사회의 특징과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누미야(2004)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성-대상성-자율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주체성이 높게 나타나는데(예, 류승아 등, 2014; 한민, 류승아, 2018),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향성에 중심을 두고 자기 인식 능력이 높으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거나 상대를 이끌고 가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최봉영과 한규석(2021)은 구체적으로 '쪽자기적 주체성'을 제안하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쪽자기적 주체성'을 가진 사람은 나와

관련된, 나와 연결된 모든 공동체, 즉 가족을 포함한 지구와 우주까지도 자신의 의식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고마움과 겸허한 마음, 존경심(p.442)"을 갖게 되고, "성찰과 수양, 절제, 인내, 성실함의 덕(p.442)"이 강조되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한국인이 원래 '쪽자기적 주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잘 나타난 예시가 코비드-19의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최봉영, 한규석, 2021).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한국인의 '주체성' 특징은 공동체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여러 핵심 개념과도 닿아있는 부분이 많다. 나를 둘러싼 여러 수준의 공동체를 인지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삶의 순간순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쪽자기적 주체성'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집단 간 배척과 무시, 혐오 등의 정서와 차별 및 낙인 등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또는 한국 문화에 내재된 건강한 특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심리학이 접근하는 영역을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을 주지하여 분석 수준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다학제적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서 심리학은 1946년 이후 70여 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발전과 기여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는 이미 심리학의 사회적 공헌을 높이고자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정책 수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한국심리학회, n.d.). 공동체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이 심리학 연구 및 실천에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심리학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심리학자가 우리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공동체심리학의 주요 개념은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공동체심리학이 생소한 한국에서는 더욱 접하기 힘든 내용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된 것처럼 ‘공동체심리학’ 역시 심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성혁, 김우정, 송윤주, 김재민, 남궁기, 하규섭, 조현상 (2015). 양극성 장애 환자의 낙인 저항에 대한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3), 309-315.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2500>
-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2022 전국 건강정신 관련 기관 현황집.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문근 (2015).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 연구모형에 관한 연구: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접근. *비판사회정책*, 47, 7-42.
- 김성재, 조월, 이수기 (2022). 도시환경 특성과 범죄발생의 연관성 분석. *한국도시계획학회지*, 23(3), 143-162.
- 김희정, 오희영, 백서하 (2022).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지독립주거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22(4), 211-221.
- 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행복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3), 177-203.
- 배은미, 박희정 (2017). 정신장애인의 지원주거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59-87.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이미영, 장은진 (2015).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험한 학교폭력 맥락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115-140.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123-145.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최봉영, 한규석 (2021).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주체성: 과잉과 대안의 성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0(4), 415-457.
- 최희철, 배은미 (2021).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의 초기적응지원 프로그램 성과 연구: 주거 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11(1), 91-101.
- 통계청 (2022. 12. 13.). 한국의 사회동향 2022. <https://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0>
- 한국심리학회 (n.d.). 학회 소개: 비전과 미션. [https://www.koreanpsychology.or.kr/user/sub01\\_2.asp](https://www.koreanpsychology.or.kr/user/sub01_2.asp)
- 한 민, 류승아 (2018). 부당한 상황에서 경험 되는 정서의 문화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51-272.
- Ahmed, S. R., Kia-Keating, M., & Tsai, K. H. (2011). A Structural Model of Racial Discrimin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Cultural Resources Among Arab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 181-192.
- Armstead, T. S., Wilkins, N., & Nation, M. (2019). Structural and social determinants of inequities in violence risk: A review of indicato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 878-906.
- Bennett, C., Anderson, I., Cooper, S., Hassol, L., Klein, D., & Rosenblum, G. (1996). *Community psychology: A report of the Boston conference on the education of psychologist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Boston University.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Campbell, R., & Wasco, S. (2000). Feminist approaches to social scienc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tene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6), 773-791.
- Case, A. D. (2017). Reflexivity in counterspaces field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0(3-4), 398-405.
- Davidson, H., Evans, S., Ganote, C., Henrickson, J., Jacobs-Priebe, L., Jones, D. L., et al. (2006). Power and action in critical theory across disciplines: Implications for critical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1-2), 35-49.
- Dawes, A. (1986). The notion of a relevant psycholog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fricanist pragmatic initiatives. *Psychology in Society*, 5, 28-48.
- Derzon, J. H., Sale, E., Springer, J. F., & Brounstein, P. (2005). Estimating intervention effectiveness: Synthetic projection of field evaluation result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4), 321-343.
- Dohrenwend, B. S. (1978). Social stress and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1), 1-14.
- Dutta, U. (2016). Prioritizing the local in an era of globalization: A proposal for decentering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8(3-4), 329-328.
- Eagly, A. H., & Riger, S. (2014). Feminism and psychology: Critiques of methods and epistemology. *American Psychologist*, 69(7), 685-702.
- Fergus, E. O. (1990). The Lodge Society and professional training. In D. L. Johnson (Ed.),

- Service needs of the seriously mentally ill: Training implications for psychology* (pp. 135 - 13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nzales, N. A., Cauce, A. M., Friedman, R. J., & Mason, C. A. (1996). Family, peer,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One-year prospective effe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3), 365-387.
- Hagan, T., & Smail, D. (1997). Power-mapping-I. Background and basic methodolog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7*, 257-267.
- Hatzenbuehler, M. L. (2017). Advancing research on structural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disparities in mental health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6*, 463-475.
- Hatzenbuehler, M. L., & Link, B. G. (2014).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structural stigma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03*, 1-6.
- Hatzenbuehler, M. L., Jun, H. J., Corliss, H. L., & Austin, S. B. (2014). Structural stigma and cigarette smoking in a prospective cohort study of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youth.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7*, 48-56.
- Jason L. A., Olson, B. D., & Harvey, R. (2015). Evaluating alternative aftercare models for ex-offenders. *Journal of Drug Issues, 45*(1), 53-68.
- Javdani, S., Singh, S., & Sichel, C. E. (2017). Negotiating ethical paradoxes in conduct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ligning intervention science with participatory valu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0* (3-4), 439-449.
- Kloos, B., Hill, J., Thomas, E., Case, A. D., Scott, V. C., & Wandersman, A. (2021)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4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vine, M., Perkins, D. D., & Perkins, D. V. (2005). *Principles of community psychology: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Linney, J. A. (1990). Community psychology into the 1990s: Capitalizing opportunity and promoting innov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1-17.
- Lorion, R. P. (2022). Preparing for 2070: Reflections from th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s initial decade: Pathways to community psychology's continuing matur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0*, 8-39.
- Maton, K. I., & Salem, D. A. (1995).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empowering community settings: A Multiple case stud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631-656.
- McChesney, K. Y. (1990). Family homelessness: A systemic problem. *Journal of Social Issues, 46*(4), 191-205.
- Michell, U. A., Nishida, A., Fletcher, F. E., & Molina, Y. (2021). The long arm of oppression: How structural stigma against



- marginalized communities perpetuates within-group health disparitie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48, 342-351.
- Montero, M., & Varas-Díaz, N. (2007). Latin American community psychology: Development, implications, and challenges within a social change agenda. In S. Reich, M. Riemer, I. Prilleltensky, & M. Montero (Eds.), *International community psychology: History and theories* (pp. 63-98). Springer.
- Moos, R. (2002). The mystery of human context and coping: An unraveling of clu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1), 67-88.
- Nelson, G., & Prilleltensky, I. (2010). *Community psychology: In pursuit of liberation and well-being* (2nd ed.). Palgrave Macmillan.
- Nicholas, L., & Cooper, S. (1990). *Psychology and apartheid: Essays on the struggle for psychology and the mind in South Africa*. Vision/Madiba
- Oxford House (n.d.). About us: History. Retrieved January 25, 2023 from <https://www.oxfordhouse.org/index>
- Perkins, D. D. (2009). International community psychology: Development and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 76-79.
- Perkins, D. D., & Schensul, J. J. (2016). Interdisciplinary contributions to community psychology and transdisciplinary promise. In M. A. Bond, C. B. Keys, & I. Serrano-Garcia (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2nd ed.) (pp. 189-20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rkins, D. D., Crim, B., Silberman, P., & Brown, B. (2004). Community development as a response to community-level adversity: Ecological theory and strengths-based policy. In K. I. Maton, C. J. Schellenbach, B. J. Leadbeater, & A. L. Solarz (Eds.), *Investing in children, youth, families, and communities: Strengths-based research and policy* (pp. 321-34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well, J., & Thyne, C. (2011). Global instances of coups from 1950 to 2010: A new dataset. *Journal of Peace Research*, 48, 249-259.
- Prilleltensky, I. (2003). Understanding, resisting, and overcoming oppression: Toward psychopolitical valid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195-202.
- Rappaport, J. (1977). *Community psychology: Values, research, and ac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 Reich, S. M., Bishop, B. J., Carolissen, R., Dzidic, P., Portillo, N., Sasao, T., & Stark, W. (2017). Catalysts and connections: The (brief) history of community psychology throughout the world. In M. A. Bond, I. Serrano-García, & C. Keys (Eds.), *APA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Theoretical foundations, core concepts, and emerging challenges* (pp. 21-6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eich, S. M., Riemer, M., Prilleltensky, I., & Montero, M. (2007). *International community psychology: History and theories*. Springer.
- Ross, L. D.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0), New York: Academic Press.
- Sarason, S. B. (1972). *The creation of settings and the*

- future societies*. Jossey-Bass.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 Schunk, D. H. (2016). *Learning theory: An educational perspective*. Pearson.
- Seidman, E. (1988). Back to the future community psychology: Unfolding a theory of social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1), 3-24.
- Serrano-Garcia, I. (1994). The ethics of the powerful and the power of ethic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 1-20.
- Shaw, C., & McKay, H.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nn, M. (2016). Methods for influencing social policy: The role of social experim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8*, 239-244.
- Sonn, C. C. (2004). Negotiating identities across cultural boundaries: Complicating cultural competence with power and privilege. *Critical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Psychology, 11*, 134-149.
- Sonn, C. C., Fox, R., Keast, S., & Rua, M. (2022). Fostering and sustaining transnational solidarities for transformative social change: Advancing community psychology research and ac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9*, 269-282.
- Tebes, J. K. (2017). Foundations for a philosophy of science of community psychology: Perspectivism, pragmatism, feminism, and critical theory. In M. A. Bond, I. Serrano-Garcia, & C B. Keys, (Eds.), *APA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Vol.2. Methods for community research and action for diverse groups and issues*(pp. 21-4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ebes, J. K., Thai, N. D., & Matlin, S. L. (2014). Twenty-first century science as a relational process: From Eureka! to team science and a place for community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3*, 475-490.
- Wandersman, A., Morsbach, S. K., McKnight, K., Hendon, E., & Coyne, S. M. (2002).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Complementaries and combinations. *Community Psychologist, 35*, 4-7.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W. W. Norton & Company.

논문 투고일 : 2023. 09. 24  
1 차 심사일 : 2023. 10. 23  
게재 확정일 : 2023. 11. 17

## The Role of Community Psychology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cusing on its' Core Concepts

Seungah Ryu

Kyungnam University

Community psychology, which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many countries over the past 50 years, but it is still an unfamiliar fiel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re concepts of community psychology an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community psychology and highlight its practicality and importanc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re concepts of community psychology, including a shift in perspective, first-order and second-order change, ecological level of analysis, and action. It also considers how these core concepts can be utilized and which direction they can provide for the Korean society. Ultimately, the goal i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community psychology, expand the scope of psychology in Korea, and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solve social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Key words* : community psychology, a shift in perspective, first-order change and second-order change, ecological level of analysis, action